

## 기러기가족의 분거 경험에 관한 사회교환이론적 고찰\*

### Separation Experiences of Wild Geese Families from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김 기 화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전공  
부교수 양 성 은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Gihwa Kim

Associate Professor : Sungeun Yang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III. 연구방법	References

####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eparation experiences of wild geese families from a social exchange perspectiv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6 mothers who lived apart from their partner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their offspring. To collect dat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mothers about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separation experienc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unique educational factor in Korea that affected wild geese families' decision on family separation. Geese families had to face psychological inconvenience caused by negative eyes from society. In addition, the fathers suffered loneliness and had difficulties in doing household chores, and the mothers experienced an overload of child parenting. On the other hand,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husband and wife was enhanced, and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her children was built. The biggest reward from the wild geese families turned out to be the educational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주제어(Key Words)** : 기러기가족(wild geese family), 분거가족(separated family),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253 You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117 Fax: +82-32-865-5228 E-mail: syang@inha.ac.kr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

\* 본 논문은 2011년 대한가정학회 제64차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수정보완함.

## I. 서론

우리사회에서 기러기가족의 사회적 현상은 조기유학 열풍이 일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그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기러기가족은 자녀의 교육성취를 위하여 가족분거를 선택하게 됨으로 적지 않은 심리사회적 불편함을 감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성취는 핵심적인 가족 발달과업으로 기러기가족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1)에 의하면 1998년 초중고 출국유학생수는 1,562명인 반면 2009년에는 18,118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기유학의 양적증가는 한국사회에서 기러기가족의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5%가 “기회가 된다면 교육이민을 가겠다” (Chosun.com, 2006, March 31)라고 응답하였는데 여론조사에 반영된 자녀유학에 대한 욕구는 실질적인 조기유학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추세로 미루어 조기유학으로 인한 기러기가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유지할 것이다.

조기유학과 그로 인한 가족분거 즉, 기러기가족에 대한 관심은 위의 통계치에서 나타난 수치적 증가만큼이나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 Oh(2008)는 분거가족에 대한 이해는 개별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한국사회에서 쟁점(issue)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다양한 마스크를 통해 분거가족이 겪는 가족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 가족학, 신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기러기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기러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극명하게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교육적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가족적 측면에서는 가족분거 문제로 인한 ‘불안한 가족형태’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는 기러기가족 현상에 대하여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기러기가족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러기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Creswell, 2007)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lived experiences)’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질적 연구가 필요(Padgett, 2001)하기 때문이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질적 접근으로 기러기가족의 분거경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느끼며 수용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러기가족에 대한 외부자적 관점인 사회적 인식을 그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나 자신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Padgett, 2001).

기러기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학문적 관심으로 분거경험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러기가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기러기가족의 분거경험에 대한 현상적 고찰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기러기가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매우 한정적이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분거의 결과로 인한 역할변화, 심리적 어려움 등 분거와 유지경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러기가족이 겪는 경험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가족분거의 의사결정 배경과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으로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 경험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가족분거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사회교환이론의 명제들은 구체적인 분석을 성립시킨다. 조기유학으로 인한 가족분거는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기러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만족할 만한 어떠한 보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적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인간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철회할 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을 선택한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 때 더 나은 기대보상에 대하여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선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으로 기러기가족의 분거경험에 접근하여 기러기가족의 실질적인 비용과 보상이 무엇인지 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러기가족이 가족분거를 선택하고 유지하고 있는 의사결정 배경이 무엇인지 교환론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문제는 첫째, 기러기가족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가족분거 의사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기러기가족이 가족분거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 셋째, 기러기가족이 얻는 보상의 경험은 무엇이며, 가족분거를 유지시키는 본질적인 만족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의 주요 개념들은 행동주의와 인간의 행동은 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경제학의 핵심원리가 결합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Yu, Choi, & Seong, 1999). 교환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여 가능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 이러한 교환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러기가족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의사결정 배경은 보상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극소화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교환이론적 관점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

교환관계에서 만족은 결과를 획득한 보상에서 비용을 뺀 것과 같다. Thibaut와 Kelley는 행위자들이 교환관계의 결과가 주는 이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경험과 기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하고자 비교수준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비교수준은 사람들이 주어진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비용과 보상을 평가하는 기준이다(Yu et al., 1999). 즉, 인간은 어떠한 관계에서 비교수준을 고려하게 되는데 비용과 보상의 측면에서 보상이 적다고 느끼거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게 된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에서 과거의 경험 보다 기대보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기러기가족에게 조기유학은 한국에서 자녀교육 상황에 있어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다고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수준이 높은 '조기유학'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교환이론이 다른 가족이론에 비해 가족관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에 대해 Lewis와 Spaniel(1982)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교환이론의 명제들이 검증가능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성립에 생산적이다. 둘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족관계를 질서있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환이론은 거시적으로 문화 간의 차이를 미시적으로는 가족관계를 보는데 적용할 수 있다(quoted in Shin & Cho, 2004). 사회교환이론은 1970년대 이후 가족연구에 주요한 이론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배우자 선택과정, 부부권력, 의사소통, 결혼의 안정성, 성역할, 성행동, 가족폭력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Mun et al., 2010). 가족관계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교환이론 틀로 설명하는 것은(Ney & Mcdonald, 1979) 누가 어떤 보상과 대가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본다(quoted in Kim, 1990). 본 연구는 기러기가족에 대한 가족관계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교환이론

틀로 제시하였다. 이는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이 거시적으로 어떠한 맥락과 상호작용하는지, 미시적으로는 가족분거로 인한 가족역동과 같은 내적변화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교환이론의 명제들로 기러기가족의 경험을 비용과 보상, 이익의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누가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경험하는지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이루고자 한다. 이는 기러기가족이 가족분거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다.

사회교환이론에서 비용(cost)은 특정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시간, 돈, 노력, 지위, 관계 등으로 정의된다(Kim, 1990). 기러기가족은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됨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기러기아버지는 가족분거로 인해 심리적 외로움(Cho, 2010)을 겪으며, 가장 힘든 부분의 하나로 성문제와 그로 인한 유혹이 많은 점이 도출되었다(Kim & Chang, 2004). 기러기아버지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6)은 기러기아버지의 생활변화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역할상실과 가족유대 약화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을 지적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기러기아버지의 심리정서적 고립과 외로움, 경제적 부담, 역할상실은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비용으로 설명된다. 또한 기러기가족은 가족분거로 인해 역할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러기아버지는 자녀의 성장을 보지 못하는 것과 기러기어머니는 자녀교육과 훈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Choi, 2006). 특히 기러기어머니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자녀양육 역할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데 이는 양육역할 가중으로 기러기어머니가 감당하는 가장 큰 비용적 측면이다.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가 장기화될 경우 나타나는 부부관계의 영향으로 Kim과 Kim(2009)은 친밀감과 신뢰감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교환론적 관점에 보았을 때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는 적지 않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된다.

교환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 보상(reward)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면서 경험하는 만족, 기쁨 등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는 부부관계에서 '신뢰'와 '애착'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Kim & Chang, 2004). 분거에 대한 아쉬움은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자녀교육 후 상봉하면 더 돈독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Yu & Kim, 2005). Kang(2009)은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를 자식을 위한 '희생'의 삶을 '미래지향적 투자'의 의미로 도출하였는데 이는 교환론적 관점에서 미래의 보상을 위하여 현재 희생의 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적용된다.

이익(profit)은 특정 상황에서 보상과 대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개인이나 집단은 최대한의 이익과 최소한의 손해를 근

거로 의사결정을 한다(Kim, 1990). 하지만 기러기가족이 가족분거를 결정하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이익과 만족의 특징들이 작용한다는 보다는 제한적이다. 기러기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이익의 경험들이 기러기가족의 분거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결과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러기가족의 분거에 대한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에서 어떠한 맥락이 작용하는지 기러기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러기가족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전제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러기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인 경험을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학문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실재를 제공하고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본추출 전략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주제에 대하여 경험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Padgett, 2001). 그러므로 본 연구 대상자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가족분거를 유지하고 있는 기러기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들의 연령 범위는 40대 중반 부터 50대 초반으로 평균연령은 48세였다. 모두 자녀의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미국 위스콘신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한다. 연구 참여자의 배우자 직업은 교수 8명, 회사원 5명, 자영업 2명, 연구원 1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분거 기간은 2년 이상 5년 미만인 11명, 5년 이상 7년 미만인 4명, 1년 미만이 1명이었다. 16명의 연구 참여자 중 13명이 전업주부이며, 대학원생 1명, 전일제 취업으로 한글학교 교사 1명, 시간제 취업이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었다.

Padgett(2001)은 질적 연구의 대상이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논의에서 주된 관심사는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표본추출에서도 질적 연구자는 표본의 크기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과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6사례는 본 연구의 표본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질적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근원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Seidman, 2009). 연구 대상자들의 편의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으로 심층면접이 진행 되었으며 주로 연구 참여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개방형질문으로 기러기가족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들의 주관적 경험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Seidman(2009)은 개방형질문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방형질문은 외부 구조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좀 더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자 “무엇이 어땠는지” 물어볼 때,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개별 면접의 경우 1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그룹으로 이루어진 경우 1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전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내용을 전달하고 녹음하는 것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으며, 면접 후 바로 전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가족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기러기가족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어 위에서 제시한 질문유형을 사용하였다. 핵심 질문으로 우선, “기러기가족이란 이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들이 기러기가족을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둘째, “어떻게 기러기가족이 되셨나요?”의 질문으로 기러기가족이 어떠한 맥락으로 가족분거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가족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탐색을 이루고자 하였다. 셋째, “기러기가족으로 어떻게 사시나요?”, “기러기가족으로 사는 것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으로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 경험에서 오는 주관적 경험을 탐색하고자 개방형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무엇이 어땠는지”의 질문을 주로 사용하고, 연구 참여자의 반응과 상황에 따라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질문과 추적질문을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위하여 우선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연구자 자신의 편견이나 생각을 ‘괄호치기(blanking)’ 하고 전사본을 읽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사례별로 전사내용을 파악하여 의미 있는 진술들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o.	age	participant's job	period of separation (years)	number of the children	husband's job	when studying abroad children's grade	frequency of the encounter (1year)	who proposed studying abroad	residence
1	50	working (Hangul school teacher)	3	2	office worker	eldest/middle school2 youngest/elementary6	2~3	husband	wisconsin
2	47	housewife	5	2	office worker	eldest/middle school3 youngest/middle school2	4	husband children	wisconsin
3	47	part time	2	2	Self-employed	eldest/middle school3 youngest/elementary5	1	husband	wisconsin
4	48	housewife	2	1	professor	middle school1	3	wife	wisconsin
5	49	housewife	5	2	professor	eldest/study one more year for college exam youngest/middle school3	2	wife	wisconsin
6	49	housewife	7	4	professor	eldest/middle school3 second/elementary6 third/elementary4 youngest/elementary1	2	husband& wife	wisconsin
7	46	housewife	5	1	professor	middle school2	2	husband	wisconsin
8	46	housewife	6	2	professor	eldest/high school3 youngest/middle school3	2	children	wisconsin
9	51	housewife	3	3	office worker	eldest/high school3 second/high school2 youngest/middle school3	1	husband	wisconsin
10	48	housewife	4	2	researcher	eldest/graduate youngest/high school1	2	wife children	wisconsin
11	50	housewife	3	2	professor	eldest/high school1 youngest/elementary3	2	wife children	wisconsin
12	46	housewife	6	2	professor	eldest/middle school1 youngest/elementary5	2	husband	wisconsin
13	50	housewife	6	2	office worker	eldest/elementary6 youngest/elementary3	4	husband& wife	wisconsin
14	49	housewife	1	2	office worker	eldest/middle school1 youngest/elementary3	1	husband& wife	wisconsin
15	48	housewife	4	2	professor	eldest/elementary6 youngest/elementary2	2	husband& wife	wisconsin
16	45	student	2	1	Self-employed	middle school2	1	wife	wisconsin

목록을 만드는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통하여 큰 주제를 범주화(meaning categorization)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범주화 시켰으며, 예외적 사례(negative case)는 재검토를 통해 보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기러기가족의 분거요인에 관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가족분거 의사결정에 관련된 경험의 분석은 조직적 기술(textual description)과 구조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조직적 기술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에 대해 경험한 것이며, 구조적 기술은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

지에 대한 경험된 현상의 맥락을 반영한다(Creswell, 2007).

마지막으로 현상에 대해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혼합하여 사회교환이론의 적용을 시도하였다.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 배경과 가족역동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사회교환이론의 중심 틀을 적용 연계함으로 이론화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 분석의 정교화와 시각화를 위하여 모델의 도식화를 형성하였다.

#### 4. 연구절차의 타당화 검증

Creswell(2007)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이란 용어를 '확증(양적인 의미)'이나 '진실성'과 '확실성'과 같은 역사

적인 용어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 과정(process)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Padgett(2001)이 질적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분석과정에서 아동복지학 전공 박사과정 중인 2명의 동료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의 조언과 지지를 얻었으며, 아동가족학을 전공하고 질적 연구를 가르치는 교수에게서 연구설계부터 자료 분석, 결과해석 과정에 지속적인 자문과 피드백을 받았다. 둘째, 예외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통하여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사례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여 이론적 모델을 수정 및 보완 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남기기로 자료분석 과정을 일지와 메모로 기록하여 제시된 연구 결과가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는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분거가족을 선택한 기러기가족의 분거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러기가족들이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의 대안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가족분거로 인해 기러기가족들이 감당하는 비용과 긍정적인 보상이 무엇이며, 기러기가족으로서 가족분거를 유지하는 가장 큰 만족의 경험은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두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 1.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성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제공한 자원 즉, 비용에 비하여 자녀의 학업에 대한 보상은 만족하지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이 성적 때문에 쫓기면서 사이가 나빠지는(#14)”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애들이 부모하고 잘 대화하지 않는(#09)” 것과 같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가족분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환이론에서 만족은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평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결과의 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커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Yu et al., 1999).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자녀교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유학이란 교육적 대안을 선택한 것은 현재의 관계가 만족하지 못할 때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교환이론적 맥락으로 설명된다.

##### 1) 신뢰할 수 없는 공교육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의 공교육에 대하여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10)” 시스템, 그로인한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12)” 때문에 “인성교육도 안 되고(#01), 기를 죽이는 교육(#16)”으로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토로하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학교 성적은 믿을 수 없게 되는거(#14)”라고 공교육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기유학을 결정하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자녀가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 보다 “편안하게 공부시키고 싶어서(#07)”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04)” 자녀의 유학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애가 중학교를 딱 가고 나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말 너무 차이가 나더라구요. 애들 뭐 선생님부터도 그렇고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러는데 정말 그거를 현장에서 많이 느낀거죠. 학부모나 애들은 많이



Figure 1. A social exchange theory model of wild geese families.

바뀌었어요. 정말 시대에 맞게끔 많이 바뀌었는데 선생님들 자체는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애들한테 대하는 거나 너무 기를 죽이는 교육이라 그래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16)

중학교 들어가면서 굉장히 경쟁적이게 되잖아요. 학교 분위기나 뭐 학원가서.(#12)

한국입시 그 입시정책, 공부만 시키는 그런 교육에 자기 본인 스스로 적응을 못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 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학벌 중심 뭐 그런거 있죠. 지방 그런 어디 아니면 기를 펴고 살 수 없는, 상류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느 대학을 나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정말 기를 펴고 살기가 힘들고...(#10)

연구 참여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한국사회의 학벌중심적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불합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한국에서 대학수능 끝나고 보니까 정말 공부 잘했다는 애들도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간 애들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는(#13)” 것과 같이 자녀의 일류학벌 성취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기유학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의 한 방편으로 지적한(Cho, 2004) 것과 일치한다.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일류학벌 성취가 성공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여 좀 더 확실한 대안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학벌중심 구조가 조기유학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선행연구(Choi, 2008)와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된다.

2) 사교육에 대한 회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시켰을 때 사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사교육비에 치이게 되어(#14) 가계경제에 부담을 느꼈으며, 고비용에 비하여 교육의 질적인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교과과정에서 “5학년이 벌써 중학교를 배우는 선행학습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15)” 고 하였는데 이는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사교육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을 내포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정말 이런 것을 애들이 해야 하는가? 힘들어도 정말 값어치가 있으면 애들한테 하라고 할 텐데(#13)” 하는 교육적 당위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팽창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교육에 대한 실망은 그만큼 사교육에 의존했던 것으로 해석되며, 사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존으로 고비용을 지출하였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만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은 사교육비가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곳은 일산인데 레벨 레벨 한 학원에 오래 둘 수도 없어요. 학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빨리 빨리 아이를 옮겨 주어야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또 탑이 되면 또 그 학원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또 옮겨줘야 되요. 그러면서 아이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는 배로 올라가요. 학원을 옮길 때마다 사교육비에 치어요. 그런데 아빠 수입은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그 돈이 만약에 이백이면 이백 이 아이에게 들어가면 아이의 수업도 그렇게 알차게 된다면 보람을 느끼면서 아이를 뒷바라지 하겠는데...(#14)

학원이나 사교육에 막 돈을 많이 들이자. 이런 것이 과연 애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엄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혼자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남 뒤에 따라가는 것이고 항상 갈등했거든요.(#09)

2. 기러기가족의 비용

교환이론에서 비용이란 상호작용시 특정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돈, 지위, 관계 등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을 포함한다(Kim, 1990). 기러기가족의 비용으로 우선, 기러기가족에 대한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로 인해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기러기가족으로 변화는 단순히 가족이 이분화 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역할변화를 초래한다. 기러기아버지는 한국에 혼자 남아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는 부양역할이 더욱 강화되며, 기러기어머니는 배우자의 부재 속에서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양육역할 가중을 겪게 된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러기가족을 선택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역할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기러기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설명된다.

1) 사회의 부정적 시각

연구 참여자들은 기러기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하여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특히 매스컴의 편향적인 방송 ‘기러기아빠의 죽음’ 과 ‘기러기엄마의 외도’ 와 같이 일부 기러기가족의 극단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킨 방송으로 인해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16)”며 부적절한 방송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방송으로 인해 형성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기러기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불편함으로 교환이론에서 비용에 해당된다.

미국 사람들이 기러기 하면서 물어보는데 왜 기러기라고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스컴에서 기러기, 기러기 하니까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을 기러기라고 하나보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기러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뭐 기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썩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떨어져있다. 그건 서로 뭐 좋아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러기라는 말을 쓰기 전에 한국에서의 교육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것을 먼저 부각을 시키고 그것으로 인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나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사실은 옳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떠나서 단순히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04)

기러기가족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러기가족에 대한 보도가 사실 썩 좋은 보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접할 때마다(길게 한숨) 그 소위 남들이 말하는 물론 나도 이제 자칭 기러기가족이지만 거기에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좀 남들 보는 관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본인은 안 그러는데 보는 시선들이 왜곡되어 보여지는거 그게 좀 안타깝고 싫은거죠. (#08)

## 2) 경제적 비용 부담

연구 참여자들의 배우자 기러기아버지는 혼자 남아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양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Kim, Song, & Lee, 2010)에서 가족분거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학비, 생활비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 중 (#01)은 한글학교 교사, (#03)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양육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중에 (#04)는 기러기가족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자녀유학으로 일을 그만 두었고, (#11)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시도하였으나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애들 데리고 일을 한다는게 쉽지 않아서 일을 그만 두고 애들한테 더 매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활비를 써야 되고 미국에서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한국에서 계속 돈을 갖다 쓰는 것이고. (#11)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하죠. 그 곳 생활과 이 곳 생활 두 가지를 다 책임져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항상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인 것. (#02)

## 3) 남편으로서 아내의 부재로 인한 가사일의 어려움과 외로움

연구 참여자들의 배우자 기러기아버지는 가족분거로 인해 혼자 생활을 하게 된다. 아내의 역할 부재로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을 혼자 감당하며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의식주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가사일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분거로 인해 혼자 지내는 심리적 외로움이 크다고 고백하였다.

생활면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식사나 뭐 집안 가사일을 아무래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힘들고 이제 남편도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것. (#05)

이제 친정 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가 반찬해서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제 뜬하게 안 오셔서, 항상 보면 물 끓여서 물에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먹으면... 밤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요즘 외롭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야기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좀. (#10)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할 때 보다 가족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면적 의사소통의 부재와 시차에 따른 물리적 요소는 기러기가족의 정서적 소통에 불가피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우자 기러기아버지가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데서 느끼는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 4) 아내로서 남편의 부재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가중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분거로 혼자 자녀양육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양육 역할을 배우자와 함께할 때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아들(#08, #04, #15)이거나 사춘기를 겪을 때(#01, #02, #03, #04, #07, #08), 엄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12, #13, #15)이 기러기가족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가중을 느낄 때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엄마가 아빠노릇 까지 해야 되는(#13)”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가중은 기러기가족에서 엄마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성격이 이렇게 썩썩하지가 못해요. 그리고 좀 한국에서도 항상 의존하던 그런 성격이어서 여기서는 그런게 힘들더라고요. 뭐 좀 아이들이 큰 문제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보면 그랬을 때 나 혼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애들도 내 책임 하에 다 있잖아요. 아빠가 멀리 있으니까.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으로 오더라고요. (#12)

두 부부가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을 혼자서 하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리고 애들도 케어를 할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일찍 알았으면 말을 안했어야 됐는데 이게 기동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야단을 치면 저기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틀어막고 있어야 되니까 독을, 그게 힘들지. 둘이 막는 것 보다 혼자 막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 그게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느 집이든 애들 사춘기는 오는데 그 래도 아닌 건 아니고... 우리 집안의 문제는 아무 문제없는데 같이 있으면 내 성격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편에서 보완할 수 있으면 애들 사춘기가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우리 애들은 사춘기가 너무 특이해서. (#01)

연구 참여자들은 기러기가족으로 살면서 역할변화에 따른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러기아버지로서 경제적 비용부담, 아내의 역할 부재로 인한 가사일의 어려움과 분거로 인한 심리적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러기어머니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혼자 돌보아야 하는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가중으로



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자녀의 교육성취’라는 가족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러기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 교환이론의 비용으로 설명된다.

### 3. 기러기가족의 보상

보상은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개인의 기쁨, 만족, 충족”으로 정의된다(Yu et al., 1999). 기러기가족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보상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부부관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모-자녀관계의 친밀감 형성,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같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교육적 성취는 기러기가족이 얻는 가장 큰 만족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 1) 부부관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연구 참여자들은 기러기가족을 선택하게 됨으로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게 되는데,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부부관계의 유대감을 위하여 화상채팅, 전화, 이메일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우자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가족관계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안쓰러움”을 갖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이러한 감정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으로 분거생활은 부부관계에 있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것도(경제적인 문제) 다 남편이 책임져야 되니까 엄청 어려울텐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해요. 저한테 애들 아빠는 제가 애들 넷 데리고 여기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06)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좀 정말 애절해 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 마음을 수고해 주는걸 아니까. 한국에서는 당연히 월급 갖다 주는거. 딱 받는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휴(한숨) 이사람 먹지도 못하고 자기끼 사지도 못하고 술, 담배도 안하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든 “일단은 이제는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방학 동안만).(#07)

상대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인정은 부부관계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남편의 부양역할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아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교환이론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호혜성으로 설명된다. 호혜성은 상호의존적인 의무와 기대의 관계망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부부관계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수행하는 의무와 함께 배우자가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Yu et al., 1999).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역할에 몰입함으로써 의무를 다하고 있고,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이 생활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07)”는 생각으로 배우자 또한 부양역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었다. 기러기가족의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의 의무에 대한 기대 충족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보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모-자녀 관계의 친밀감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와 밀착된 생활을 하면서 모-자녀관계에서 “둘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고(#04)”, “한국에 있을 때 보다 확실히 좋은(#09)”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자녀학업에 대한 몰입과 스트레스는 가족 간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소원한 관계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학업에 대한 “여유가 생기면서 자녀와 관계가 좋아졌다(#12)”라고 이야기 하였다. 자녀의 교육환경 변화는 모-자녀관계에서 학업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긴장을 해소시키고, 자연스럽게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저희 애와 4학년까지 대화를 안 하고 산거 같아요, 늘 하는 대화가 “몇 점?, 이번에는 어떻게 레벨 올라가?, 이번 테스트는 어때?” 늘 이런 대화만 했지. 그 아이하고 정말 “너 공부하면서 힘든거 있니?” 이런 말은 정말 해보지 못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느낀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희 말하고 정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살았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너무 좋아요.(#15)

저는 정말로 아이가 다달이 학원에서 가져오는 성적표, 학교에서 가져오는 성적표 갖고 아이하고 트러블이 너무 많았고, 아이는 쉬지 않고 하는데 제 만족도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더 많이 바라니까 매일 욕심이 과하게 쌓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이하고 정말로 해야 되는 대화는 하지도 못하고 사이만, 조금만 틀려오면 화내니까 미워지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이거 밖에 못하니?” 이런식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왔는데 너무나 솔직히 저는 딸한테 너무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내가 여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딸이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하고 저한테는 지금 오히려 제가 그 아이의 보호자나 도움을 줄 입장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제 보호자고, 막 몽글하네.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아이한테 이런 거를 발견 못 했을거 같아요.(#14)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와 밀착된 생활을 하면서 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생활할 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푸쉬(#08)”와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불만족이 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모-자녀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의 보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자녀 관계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언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자녀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상채팅, 이메일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감으로 부-자녀 관계에서 친밀감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고마움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녀들은 자신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가 분개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했거나, 한국의 교육상황에 대하여 주변을 통해 간접경험을 한 자녀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교육환경에 더욱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만족은 자신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성취를 위해 경제적·심리적 비용을 치루는 반면 자녀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같은 심리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희생한다는 것을 애들이 커가면서 알고 고마워하고, 또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해야 되고 막 어떤 그런 푸쉬만 하고 고마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생활하고 커가면서 “아! 엄마 아빠가 참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 그것을 좀 아는 거 같아요.(#08)

“어! 엄마, 저는 정말 상상이 안돼요. 제가 그렇게 밤새도록 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학교가고, 엄마! 저는 그 생활을 그게” 물론 했었겠지만 자기는 그런 생활이 상상이 안 되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었어야 했냐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편히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것저것 해가면서 학교 생활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죠.(#07)

### 4) 자녀의 교육적 성취

연구 참여자들이 기러기가족으로서 얻는 가장 큰 만족의 경험은 모든 사례에서 ‘자녀의 교육적 성취’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04)”, “자기공부를 찾아서하고 교수님들한테 인정받는 것(#10)”과 같은 자녀의 학업성취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이익으로 나타났다. 기러기가족의 공동목표가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기회를 주어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기러기가족에게 자녀의 교육적 성취는 적지 않은 비용을 치루면서 가족분거를 유지할 수 있는 큰 보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100% 만족하고 우리 애들도 다 좋아하고요, 근데 아빠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피프티 퍼센트(50%)였어요, 근데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여기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것을 보니까 한국 교육보다는 훨씬 알차고 내실있고, 애한테 진짜 어떤 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교육을 100% 그 아이가 습득했다고 아빠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모든 가족이 다 만족하고 있어요, 현재 결정에 대해서.(#11)

연구 참여자들 중 기러기가족을 결정하기까지 꽤 많은 시

간이 걸린 가족도 있었다. 이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처음부터 가족구성원 모두 찬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가족분거까지 감수하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가족구성원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이 아쉽지만 자녀유학 결정에 대하여 가족 모두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는 기러기가족의 비용과 보상 차원에서 가족분거로 인한 비용을 감수하고 있지만 자녀교육 성취에 대한 보상의 경험이 크기 때문에 기러기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아이를 보면 결정 잘했고 만족하죠. 이제 아무래도 아빠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 잘해주고 하니까...아빠도 이제 가끔 힘들죠, 사람인데. 혼자 지내고 이러니까 힘든데 아이를 생각 한다면 뭐 엄마, 아빠 다 만족하죠.(#15)

가족관계는 장기적인 상호관계를 맺는 관계로 가족 내의 non-zero-sum(협동의 관계)상황을 극대화하는 조건은 가족원 간에 유사한 목표와 가치관을 지니는 것이다. 가족원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목표에 도달함에 따라 가족원 모두가 보상을 받으므로 협동하여 응집력 있는 목표를 추구한다(Kim, 1990). 연구 참여자 기러기가족은 ‘자녀의 교육성취’라는 가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본 연구는 분거가족을 선택한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과정과정을 사회교환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들의 비용과 보상, 그리고 이익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을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상호작용시 보상을 극대화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는 사회교환이론의 주요가정을 적용한 의사결정 모델은 기러기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기러기가족의 가족분거에 영향을 주었으며, 기러기가족의 비용과 보상, 만족의 경험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기러기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적응문제에 대하여 초점을 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는 기러기가족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기러기가족이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가족분거를 선택한 의사결정 배경에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지닌 독특한 교육적 요인이 작용한다.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2006)의 보고서에서 조기유학의 동기가 과도한 사교육비, 치열한 경쟁, 국내 교육에 대한 불만으

로 보고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교육은 공공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분거가족 문제는 공적 문제의 사적 해결에 지나지 않는다(Choi, 2008)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주목할 점이다. 한국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성취는 무엇보다 주요한 가족발달 과업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보상의 경험은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기러기가족은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족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가족공동목표를 자녀의 교육성취로 정하고 일정기간 불편함을 감수하며 조기유학 의사결정 합의에 도달한다.

우리사회에서 기러기가족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말경 조기유학 붐이 일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매스컴의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보도는 기러기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기러기아버지에 대한 보도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었으며, 가족분거의 어려움으로 '탈선이나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기러기어머니에 대한 보도는 현지에서 외도와 관련된 '일탈적 삶'에 대하여 방송되었다. 이와 같이 기러기가족이 겪는 극단적인 문제를 다룬 방송은 일부 '분거가족'의 문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로 인해 기러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자녀교육을 위해 일정기간 분거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해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문제 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한 가족구조'라는 왜곡된 시각이 조성되어 있다. 기러기가족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실제 삶에서 심리적 불편함의 비용을 치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점으로 기러기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러기가족은 매스컴에서 보도된 것 같이 자녀교육의 명목 아래 일탈적인 삶을 경험하거나, 가족분거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가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녀교육에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였으며, 실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가족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다. 또한 현재 자신들은 자녀교육 성취를 위해 몰입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다. 이는 기러기가족에게 가장 큰 만족의 경험인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기러기가족이 겪는 비용으로 가족분거로 인한 역할변화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부양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어머니는 자녀양육에 있어 역할가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6)이 기러기아버지의 자녀양육 역할상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역할변화는 아버지의 부양역할과 어머니의 양육역할로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기러기가족이 얻는 보상으로 가족관계에서 긍정적 변화가 탐색되었다. 우선, 기러기가족이 얻는 부가적 보상으로 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에서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와 학업 스트레스는 가족의 긴장상태를 유발 시키고 가족화목을 방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기유학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은 모-자녀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교육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 둘째, 부부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되었다.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에 있어서 '실패'는 부부의 상호관계에서 호혜성을 성립시키며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셋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은 부모역할에 대하여 자녀가 느끼는 인정으로 기러기부모는 자녀로부터 고마움의 심리정서적 보상을 받는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는 기러기가족이 가족분거를 결정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보상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 상호관계에서 추가적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러기가족에게 자녀교육 성취는 최우선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가족의 공동목표이다. 그러므로 기러기가족은 자녀의 교육성취가 만족에 이르게 되면 현재 가장 큰 이익의 보상을 경험한다. 이는 기러기가족이 가족분거로 인해 겪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성취는 기러기가족을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연구 참여자 기러기가족은 가족분거 상황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희생' 하고 있거나 '투자'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희생' 과 '투자' 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기러기가족은 대가나 보상을 포기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그들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의 보상과 이익을 경험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에는 '자녀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더 큰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기러기가족은 현재 불편함의 비용을 치루며 '교육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교환이론의 "인간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상황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을 다룬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기러기어머니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가족전체의 역동과 의사결정 경험에서 기러기아버지와 자녀의 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연구 참여자 기러기어머니를 통해 다른 가족들의 경험이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따라서 기러기가족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기러기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기러기가족에 대한 연구들 중에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제한적인데 가족분거가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루어

어진 만큼 자녀의 경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교환이론 관점으로 기러기가족 의사결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재(now-and-here)'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이나 외부적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비용과 보상, 만족과 같은 가족역동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러기가족은 조기유학에 대하여 비용과 희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보다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같은 만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교육성취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조기유학을 포기하고 가족이 재결합 한 사례 등 다양한 기러기가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조기유학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족과의 다른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의의로 첫째,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함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이다. 가족학에서 교환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 자녀 출산, 일하는 여성 등 가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 과정을 적용한 연구는 다수 있었다. 하지만 기러기가족의 의사결정을 사회교환이론 관점으로 고찰한 것은 선행연구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교환이론적 고찰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간과 되어왔던 기러기가족에 대한 분거 결정과 유지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고 기러기가족의 후속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담론화를 이끌어냈다.

둘째, 기러기가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거가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모형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양적연구에 필요한 측정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기러기가족 구성원 모두의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족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가족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가족 모두의 경험을 균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가족 구성원 각자의 비용과 보상의 경험에 대하여 접근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가족 의사결정에 작용하는지 탐색하였다.

넷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준거 틀을 형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기유학 추세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교육적 문제점이나 새로운 교육 대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의 기러기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적 환경을 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열망이다. 하지만 한국사회 안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적 욕구가 해결된다면 조기유학으로 인한 가족분거는 다소 감소되리라 사료된다.

다섯째, 기러기가족에 대한 실천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역할재정립, 심리정서적 어려움, 가족기능유지 등 기러기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가족실천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가족 실천 분야에 있어서 기러기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가정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누리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족프로그램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러기가족이 겪는 역할변화에 따른 어려움과 변화된 생활환경, 유학을 마친 후 가족의 재결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은 분명 가족실천프로그램에 고려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Cho, E. (2004). Korean Families on the Forefront of Globalization. *Economy and Society*, 64, 148-171.
- Cho, E-S. (2010). Family Relationship Change of Korean Transnational Family throughout their Separation and Reunion as Serial Immigration.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 15(3), 91-115.
- Choi, Y-S. (2006). The phenomenon of Geese-Families: Marital Separation between Geese-fathers and Geese-mothers. *Korea Family Studies Association*, 18(2), 37-65.
- Choi, Y-S. (2008). On the Socio-Psychological Mechanisms of 'Geese-Family'.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 13(3), 67-97.
- Chosun. com (2006, March 31). National 25%, "If the opportunity, I will go Education Immigration". <http://news.chosun.com> 에서 인출함.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H-S. Cho, S-W. Jung, J-S. Kim, & J-S. Kwon,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Kang, Y-J. (2009). Transnational Life of Korean 'Wild Geese Family': Coping Strategies and Family Paths Across Time.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0(2), 205-221.
- Kim, J-H., Song, M-K., & Lee, H-H. (2010). A Study of wild-geese father' experiences of decision-making and maintenance in separated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4),

- 107-133.
- Kim, M-C. (1990). Choice, Exchange Perspective in Family Research.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3), 147-160.
- Kim, S-S. (2006). The 'Kirogi Father' Change of Lives and Adaptation Problem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1), 141-158.
- Kim, Y-H., & Chang, O-J. (2004). Issue of Families that Run Separate Household for a Long Time.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 9(2), 1-23.
- Kim, Y-H., & Kim, T-H. (2009). A Study of the Families in Long-term Separation: Marital Relationship of 'Wild Geese Families'.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 14(3), 297-326.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Immigration status for international students early studying abroad.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 Some Right Reserved. (2006). Survey and countermeasures about Early Studying Abroad.
- Mun, H-J., Kim, J-L., Yang, S-Y., Lee, E-J., Cheon., H-Y., & Hwang, O-K. (2010). *Social Work with Families*. Seoul: Changjisa.
- Oh, U-H. (2008). Early studying abroad, departure towards a utopia - an early study of the complex function and dysfunction. Seoul: kyoyookbook.
- Padgett, D. K. (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T-G. Yu, Trans.). Gyeonggido: Nanam.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Seidman, I. (200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H-J. Bark, & S-Y. Lee,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Shin, H-Y., & Cho, B-E. (2004). Rewards, Costs and Relationship Quality perceived by caregiving adult children(a comparison between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 9(1), 153-174.
- Yu, G-S., Choi, Y-S., & Seong, M-A. (1999). *Family Studies Theory*. Seoul: Muneumsa.
- Yu, H-J., & Kim, SSR-A. (2005). Children's education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 Early studying abroad of wild geese family. *Korea Family Culture*. The 21st century, Korea, and alternative family issues. Seoul: Gyeongmunsa.

---

접 수 일 : 2011년 9월 14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1일